

내가 즐겨쓰는 향수는 어떤 식물로 만들어졌을까?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향료 A TO Z

클렉티프 네 지음, 김태형 옮김

핑크 페퍼, 블랙커런트 베드, 시나몬, 버지니아 시더우드, 라벤더, 만다린, 파츨리, 일랑일랑, 바닐라...

언급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향을 품은 식물들이다. 향이 나는 천연물은 오랜 기간 "테워지고 운반되고 거래되고 배합되고" 종류의 방식으로 추출했다.

역사 속 향료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등장한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몰약과 유향 등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다. 황금은 왕권을, 향기 나는 유향은 기도의 향을, 마지막으로 몰약은 예수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한다.

인류가 사용한 향이 나는 물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유향과 몰약이다. 인센스와 미트라고도 불리는 이 향료는 나무가 없었던 지역에서조차 종교적 의식에서 사용되었다.

향기로운 식물들이 향수로 재탄생하는 이야기를



다른 '향료 A TO Z'는 흥미로운 책이다. 원료의 특성, 재배, 추출 과정을 포함해 조향계 원료들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인 클렉티프 네는 향수와 냄새에 열정을 가진 에호가들과 이를 다루는 각계 전문가들의 단체다. 책을 엮은 이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향수 전문 사이트 '오프라망'을 공동 설립한 잔 도레다.

고대부터 향료는 신과 죽은 자를 기리고 돌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더러 질병을 치료하거나 타인을 유혹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는데, 인류는 향료를 얻기 위해 먼 거리를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유향의 첫 사용은 기원전 2400년으로 점쳐진다. 이때부터 기원전 13세기까지 유향과 몰약의 수입은 팔레스타인 쪽으로 영향력이 확장되던 이집트 군사적 원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향이 나는 식물은 처음 용도와 다르

게 권력 다툼의 중심으로 변질됐다.

중세까지만 해도 향이 나는 식물은 연구의 대상이었다. 이후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열풍과 맞물려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탐험 등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자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메리카의 바닐라와 초콜릿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의 정향, 아시아 사향노루에서 추출한 머스크, 커피 등 많은 원료가 유럽으로 옮겨졌다.

생산자들은 상호 보완적 방법으로 조향사 팔레트를 풍성하게 하는 천연향료를 공급하고 있다. 과거 유향이 식민지 관계를 토대로 했다면 오늘날에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가우드는 '신들의 나무' 또는 '액체로 된 황금'이라 불린다. 조향계에서 사용되는 가장 비싸고 신비로운 원료로 꼽힌다. 아가우드는 아킬라리아라는 나무에서 열린다. 라오스와 베트남 국경을 따라 뻗은 안남산맥의 고원 지대에서 자생한다.

"수령이 50년 이상 된 아킬라리아는 보석과도 같은 아가우드를 품고 있어서 행운의 나무라는 의미의 '마이바드사나'라 불리게 된다." 나무와 가죽 같은 향기를 발하며 육감적인 애니멀릭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서양 향수 시장을 점령했다. 엠버우드는 '톡 쏘는 나무'라고 불



시나몬



'핑크 페퍼'



'베르가못'

린다. 엠버 우드 계열은 남성 향수 시장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풍부한 잔향이 특징이며 후각적 볼륨감 외에도 탁월한 지속력을 겸비하고 있어 조향사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시나몬은 따뜻하고 스파이시한 향의 갈색 껍질 향신료다. 최고 품질은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며 햇볕이 강하고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 특별한 관리가 없어도 잘 자라기 때문에 유기농에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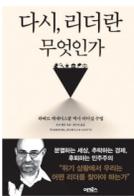
하다. 번역을 한 김태형 조향사는 "낮설고 불친절하지만 한껏 향기를 품은 활자들을 통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든다. 한 단락이 마무리될 때면 마치 향기를 맞이하는 순간에 다다른 것처럼 눈을 감고 일련의 행동을 취한다"고 했다.

<미술포함-3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시, 리더란 무엇인가

모식 템킨 지음, 왕수민 옮김



리더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는 요즘이다. 리더가 얼마나 유능하고 균형감을 갖고 지혜가 있느냐에 따라 조직의 운명은 달라진다.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다.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모든 조직에 있어 절대적이다.

혹자들은 오늘의 세상을 불안정, 추락, 후퇴 등으로 말한다. 민주주의는 뒷걸음치고 세상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어려운 시국을 타개해 나갈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리더를 잘 세우는 것이다.

역사학자 모식 템킨이 펴낸 '다시, 리더란 무엇인가'는 역사 속의 리더들을 소환한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역사 리더십 수업'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수업 강연을 모티브로 쓰여졌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부교수인 저자는 공공정책학과 역사학을 매개로 다양한 강의를 펼쳐왔다. 그가 온데 '역사 속 리더들과 리더십'은 10여 년간 누적자 수천 명에 이를 만큼 인기를 얻었다.

저자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이상, 소명, 세계관을 한 사회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본다. 보수주의자 후버는 대공황이 닥쳤을 때 구조적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반면 루스벨트는 취임 100일 만에 뉴딜을 비롯한 76건 법안을 통과시켜 추진력을 발휘했다.

저자는 후버와 루스벨트의 성패를 가른 것은 위기 대응 방식, 공감능력이었다고 지적한다.

<어크로스-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수선의 기쁨

제타 안 지음



알록달록 털실을 보면 파스함이 느껴진다. 털스웨터, 털복도리, 털장갑... 추운 겨울 등장하는 다양한 뜨개 작품들도 역시 따뜻함으로 다가온다.

'털실 뜨개 공예'로 불리는 제타 안의 첫 책 '수선의 기쁨'에도 털실 예술에 대한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다. 저자는 3년 전부터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시도하는 (사)다시입다연구소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개인 SNS에 알록달록 뜨개예술수선에 대한 스토리를 꾸준히 남기며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의 뜨개에는 독특함이 담겨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뜨개가 아닌 낡고 손상된 부분을 이어 붙이는 '수선 뜨개'다. 아버지의 오래된 여름 양복, 아들의 작아진 바지, 구멍 난 장갑과 양말, 딸의 등산 가방, 보냉 백과 같고리, 빗자루에까지 알록달록 털실이 이어져 새롭게 태어난다.

책은 저자가 어떻게 수선공예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과 함께 수선작업을 하며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그동안 어떤 수선작업을 해왔는지 인생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며 실태를 풀어낸다. 에세이 파트에서는 할아버지의 여름 양복, 애작 밀짚모자, 바이올린 손잡이까지 제타 스타일의 수선공예 작품들이 계절별로 펼쳐지고, 후반부에는 수선 도구와 소재, 뜨개 기본 기술 등을 담았다. 기본 기술 편에는 QR 코드가 있어 동영상을 보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무언가를 고치고 변화시키는 일은 즐거웁습니다. 요즘의 저는 더 행복하답니다. 작은 문치의 털실과 나무 대비늘 한 벌로 좋아하는 나의 오래된 물건을 되살리는 수선 예술가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각자의 숨어 있는 재능과 본인만의 색을 찾아가는 여정이 기쁨이 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오와-1만9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호라이즌

배리 로페즈 지음, 정지인 옮김



차디찬 북극권을 파고들었던 선사시대 사람들, 아프리카에 발 디딘 개척자, 쇠국 외교를 지향했던 아시아에 건너온 미국인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 모두 '탐험'과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미지로 뻗어 나갔다는 것이다.

작가 배리 로페즈 또한 탐험에 일가견이 있다. 그는 북극, 남극, 북태평양, 남태평양, 아프리카, 호주 등을 누볐던 경험을 엮어 논픽션 '호라이즌'을 집필했다.

노터데임대학에서 사진, 연극 등을 전공한 저자는 땅과 인간의 관계를 조명한 작품들을 써왔다. 전미 도서상을 수상한 그가 생전 마지막 발표한 역작이 '호라이즌'이며 이번에 국내에 번역·출간된 것.

책 속 여정은 북아메리카 서부, 북태평양 동부 연안 오리건주 해안에 걸친 '파울웨더'에서 시작한다. 이어 캐나다 누나부트 준주에 위치한 엘스미어섬 일대 '스카펠링 섬', 적도에 위치한 산타크루스 섬과 아프리카 투르카나 호수의 서부고지 등 생소한 공간으로 이어진다.

작가는 세계 전역을 누비며 식민주의, 기후변화와 지질학, 생물학에 대한 고찰을 이어간다. 남극 대륙과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남극횡단산맥, 중앙부의 퀴모드산맥을 둘러보면서 자신만의 성찰을 이어간다.

저자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자 하는 욕망, 특히 우리 두려움의 근원과 본질을 이해하려는 욕망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인간의 디아스포라'와 '여섯 번째 대멸종'이 떠도는 유령처럼 다가오고 있다 경고한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물음표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탐구심이 위기를 극복하는 매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북하우스-3만50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